

# 최정·김강민 없어도 '되는 집안' SK

문승원 6이닝 무실점+13안타 타선 박정권, 3타수 2안타 부상회복 펄펄



단독 선두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SK 와이번스의 투니바키가 척척 맞아 돌아간다.

철벽 마운드의 안정감과 타선의 화끈한 폭발력이 차츰 발을 맞춰나간다. 1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의 홈경기에서는 선발 투수 문승원의 6이닝 무실점 호투와 13안타를 몰아친 타

선의 상승세를 묶어 9-2 완승을 거뒀다. NC를 상대로 주말 3연전을 모조리 쓸어 담은 SK는 8연속 위닝 시리즈 행진을 이어가며 47승23패1무로 부지런히 승패마진(+24)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라운드에서 나서는 면면이 저마다의 몫을 충실히 책임지는 덕분에 '계산이 서는' 야구를 펼친다. 특히 이날 SK는 손가락이 불편한 최정과 체력 인내가 필요한 외야수 김강민 등이 휴식을 위해 벤치에서 대기했지만, 핵심 타자 두 명의 공백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허리 부상을 털고 14일 1군 엔트리에 합류한 박정권이 5번 1루수

로 선발 출장해 3타수 2안타 1타점 3득점 2볼넷으로 타선의 중심을 잡았다. 뒤이어 6, 7번 타자 고종욱(2타점 1득점)과 나주환(4타점 1득점)이 각 3안타씩을 터트리며 응집력을 키웠다. 특히 박정권은 자신의 응원가 가사처럼 '천하무적'이었다. 선두 타자로 나선 2회에 중전 안타로 출루한 뒤 후속타로 홈을 밟아 팀에 선취점을 안겼고, 3회에 1사 주자 1·2루 때 좌중간 적시타를 터뜨려 4-0으로 달아나는 점수를 뽑았다. 7회에는 1사 1·2루 상황에서 구원 투수 김영규가 폭투로 흔들리는 틈을 타 불넷을 골라내 무사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기존 1루수 로맥은 최정을 대신해 3루로 이동했지만, 세 차례 직선타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연신 좋은 수비를 선보였다.

충분한 득점 지원 덕분에 투수들의 어깨도 한결 가벼웠다. 문승원은 6이닝 1안타 3삼진 2볼넷으로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승수를 추가했다. 압도적 점수차에 힘입어 SK는 필승조 없이 박민호~강지광~신재웅을 내세워 승리를 완성했다. 경기 후 문승원은 "승리는 항상 기분이 좋지만, 이번 주에는 2승이나 거뒀 2배로 기쁘다"며 웃었다.

인천 |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KBO리그 경기결과		▶ 16일	
잠실	LG 3	:	5 두산
고척	한화 6	:	9 키움
인천	NC 2	:	9 SK
대구	KT 3 (연장 10회)	:	1 삼성
사직	KIA 5	:	10 롯데

## 16일 게임 브리핑

### LG, 한이닝 4사구 8개라니 KT, 삼성 잡고 시즌 첫 6위

#### ●LG, 역대 한 이닝 최대 4사구 타이

LG는 16일 잠실 두산전에서 3-0으로 앞선 2회말 임찬규와 임지섭이 나란히 볼넷 3개, 사구 1개씩을 내주는 등 총 8개의 4사구를 허용해 KBO리그 역대 한 이닝 최대 4사구 타이기록의 불명예를 썼다. 종전 기록은 1994년 6월 24일 한화가 전주 쌍방울전에서 1회 8개의 4사구를 허용한 것이다. LG는 2회 선두타자 박건우부터 타선이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총 8명의 타자를 볼넷(6개)과 사구(2개)로 내보내며 단순에 5점을 잃었다. 부랴부랴 구원등판한 김대현이 2사 만루서 오재일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이닝을 마감해 역대 한 이닝 최대 기록의 불명예는 피했다.

#### ●KT, 이틀 연속 삼성 잡고 6위 도약

KT가 대구 원정에서 삼성을 연장 10회 접전 끝에 3-1로 누르고 1패 뒤 2연승으로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쟁겼다. 포 시즌에서 앞서 삼성을 7위로 끌어내리고 올 시즌 처음 6위로 올라섰다. KT는 1-1 동점이던 10회초 강백호의 결승타와 유한준의 추가 적시타로 2점을 뽑았다. 라울 알칸타라(7이닝 1실점)에 이어 8회 2번째 투수로 등판한 이대은은 3이닝 1안타 3삼진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롯데도 사직에서 KIA를 10-5로 꺾고 모처럼 2연승을 거뒀다.

#### ●김태형 감독 "후랭코프, 퓨처스 한번 더!"

두산 외국인투수 세스 후랭코프가 퓨처스리그에서 한 차례 더 실전등판을 진행한 뒤 1군에 복귀한다. 김태형 감독은 잠실 LG전에 앞서 "후랭코프가 오는 자체 청백전(2군)에서 28루를 던지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팔 상태는 괜찮다고 한다"며 "본인이 2군에서 한 차례 더 던지며 투구수를 늘리고 오겠다고 하더라. 계속해서 상태를 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랭코프는 1군 선발로테이션을 한 차례 더 건너뛰고 복귀할 전망이다. 후랭코프 대신 16일 선발등판한 최원준이 다음 차례인 22일 인천 SK전까지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 ●'이하연업' 한화 지성준, 25일 만에 1군 복귀

한화 포수 지성준이 25일 만에 1군에 복귀했다. 한화는 고척 키움전에 앞서 포수 김중민과 투수 박주홍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지성준과 투수 김중수를 등록했다. 지성준은 5월 22일 말소됐다. 지난해 99경기에서 타율 0.275, 7홈런, 29타점 등으로 가능성을 보인 지성준은 올해 이하연업으로 인해 벌써 2차례나 1군에서 제외됐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허 피른 로하스 KT 외국인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오른쪽)가 16일 대구 삼성전 2회초 무사 1루서 박승욱의 삼진 때 2루 도루를 시도해 이학주(왼쪽)의 태그를 피해 베이스를 먼저 찍고 있다. 로하스는 후속타 볼넷으로 득점까지 이르지 못했다.

## 팀 순위 양극화...하위권 반란 중요한 이유

### 정재우의 오버타임

반발력을 낫춘 새 공인구가 등장하고, 몸값 상한 100만 달러를 골자로 한 새 외국인선수 계약 규정이 도입되면서 올해 KBO리그에선 과거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2014년부터 불거진 '타고투저' 현상은 거짓말처럼 종적을 감췄고, 멀쩡히 잘 던지던 외국인투수는 퇴출과 재취업으로 엇갈린 롤러코스터에 강제로 탑승한 채 일주일간 가슴을 졸였다.

이마저도 간단한 해법을 놓고 지난 몇 년간 왜 그 많은 투수들은 타자들의 방망이가

돌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는지, '용병은 그저 용병일 뿐'이라는 비정한 주제를 놓고 왜 또 한바탕 소모적 논쟁을 벌여야 하는지 조금은 씩씩하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제도 또는 규정의 변화에 KBO리그는 몹시도 취약하다. 마흔 살 가까운 나이가 무색할 지경이다.

올해 KBO리그의 또 하나 새로운 양상은 팀 순위의 양극화다. 반란점이 눈앞이지만 좀처럼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승률 5할을 기준으로 상위 5개 팀과 하위 5개 팀으로 현격하게 갈린다. 4월부터 일찌감치 고착된 팀 순위의 양극화로 인해 상위권에선 SK와 이인쓰와 두산 베이스의 1위 경쟁, 하위권엔

선 롯데 자이언츠의 끝 모를 추락 정도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마치 이질적인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순위표를 붙여놓은 듯한 팀 순위의 양극화가 시즌 끝까지 지속된다면 KBO리그의 인기(홍행)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격차 해소가 시급해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다. 4월말 기준 5위 키움 히어로즈와 6위 한화 이글스의 간격은 4.5게임차였다. 5월말에는 5.5게임차로 더 벌어졌다. 6월 들어서도 현재까지는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5위 NC 다이노스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상·하위권의 극심한 격차는 다소나마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아직은 모른다. 지난해에도 6월말까지는 LG 트윈스가 44승1무36패로 4위, 넥센(현 키움)이 40승42패로 5위, KIA 타이거즈가 37승

39패로 6위였다. 7월말에는 4위 LG~5위 삼성 라이온즈~6위 넥센~7위 KIA의 순서였는데, LG만 승률 5할을 웃돌았을 뿐이다. 그리고 최종 결말이 어땠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팀 순위의 양극화에 인위적 해법은 있을 수 없다. 공인구 교체와 맞물려 타고투저를 누그러뜨린 것과 같은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은 골짜기 롯데 자이언츠를 비롯한 하위권 팀들의 대분발이 절실하다. 물론 쉬울 리는 없다. 다만 지난해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요기 베라의 명언대로 여전히 시즌은 절반이 남았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전문기자 jace@donga.com

## '전설' 선동열도 감동한 OK저축은행 '농아인 야구' 후원

### 제10회 선동열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

벌써 10년째...한결같이 대회 유치 정길호 대표 "앞으로 10년도 지원" 선동열 "뜻깊은 대회 적극적 동참"

그라운드 안팎으로 바쁘게 사인이 오고간다. 작은 플레이 하나에도 끊임없이 집중하는 이들의 플레이는 프로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습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OK저축은행이 후원하고, 한국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제10회 선동열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가 15일과 16일 경기도 안산 배나물야구장과 신길야구장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개최 10주년을 기념해 야구국가대표팀 사령탑을 지낸 선동열(56)의 이름을 내걸고 새롭게 단장됐다.

대회 마지막 날인 16일 배나물야구장에서선 청주 기드온이글스와 대구 호크아이의 결승전이 펼쳐졌다. 경기에 앞서 OK저축은행 정



OK저축은행이 후원하는 '제10회 선동열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16일 안산 배나물야구장에서 한국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 전현호 이사,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프리카서비스그룹 최원 회장, 농아인야구소프트볼연맹 조일민 회장, OK저축은행 정길호 대표(왼쪽부터)가 10주년을 자축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대회에 시구자로 나선 선 감독은 "나도 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 OK저축은행

길호 대표가 시타에 나섰고, 시구자로 선 감독이 마운드에 올랐다. 선 감독은 3회 대회에 이어 7년 만에 다시 이 대회의 시구를 맡았다.

#### ●OK저축은행, 꾸준한 10년 후원

2010년 선을 보인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야구대회는 올해로 정확하게 10번째 대회를 맞았다. OK저축은행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꾸준하게 이 대회를 지원해 농아인

들의 야구저변 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정 대표는 16일 취재진에게 "10주년을 맞이해 올해부터 특별히 대회 이름을 '국보' 선동열 감독의 이름을 따 만들었다. 이 대회의 취지는 우리 그룹의 가치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한다. 소외 받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사회와 나누기 위해 진심으로 열성을 다해 후원했다. 전국농

아인야구대회가 앞으로의 10년에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게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선동열 감독 "나도 이들로부터 배운다"

선 감독은 16일 이른 오후부터 야구장을 찾아 선수들과 함께했다. 원 포인트 레스를 통해 재능기부를 실천하는가 하면 설 새 없이 쏟아지는 사인 요청에도 일일이 응답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후 결승전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관계자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선 감독은 "3회 때 시구를 한 후 7년 만에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뜻 깊은 대회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OK저축은행 관계자분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꾸준하게, 그것도 10년 동안 대회를 후원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단한 열정이다. 야구인인 나도 이번 대회를 보며 정말 많이 반성했다. 뜻 깊은 이런 대회에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다시 한번 OK저축은행의 후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열정에 대해서는 "나도 이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길 바란다. 11회 대회에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인천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